

#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 인문학**

심강현 지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다.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압박감, 경쟁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누군가에게 멸시당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

이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슬픔의 감정이 자리한다. 복잡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기쁨보다 슬픔의 감정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슬픈 감정은 때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감정의 철학자’로 불리는 스피노자는 대표작 ‘에티카’에서 슬픈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언한다. 그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이들이 슬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고집했던 사유의 흔적들이다.

‘시작하는 철학여행서’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로 알려진 현직 의사인 심강현 씨가 펴낸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 인문학’은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의과대학 시절 정신과학과 심리학 강의를 접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피노자는 철학사의 뒷골목에 버려져 있던 욕망을 재발견한 철학자다. 그는 우리의 영혼은 이성과 감정,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의 본질은 이성이 아닌 욕망으로 본다. 고전적인 철학 즉 플라톤 철학에서 마부(馬夫·말을 모는 사람)였던 이성은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말이 되어 마차를 끌고, 욕망은 고삐를 쥐게 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망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매우 긍정적인 동시에 우리 영혼의 일부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감정 대부분은 외부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데 스피노자는 이를 ‘정념’이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경쟁심, 경외심, 경멸이라는 세 개의 틀로 스피노자의 슬픈 정념을 설명한다. 또한 허영심, 열등감, 오만 등 부정적 정서들은 ‘미움의 삼중주’ 선율이 만들어낸 슬픈 화음으로 규정한다.

스피노자는 슬픈 정념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이며 감정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과정은 ‘자유’를 향한 도정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비록 힘겨울지라도 제가 당신께 보여 드릴 하나의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정해 둔 정답이 아닌 당신이 찾아낼 당신만의 삶의 해답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 감정의 주인, 더 나아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출판사: 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세대·지역·계층·이념 통해 본 유권자 지도

## 표심의 역습

이현우 외 지음



여야의 4.13총선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탈당 도미노와 무소속 출마 강행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천을 받은 이들도, 컷오프 된 이들도 이구동성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과연 정치인들은 국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던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책이 발견됐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펴낸 ‘표심의 역습’은 잘 몰랐던 진짜 표심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서강대 정치연구소 연구팀 등이 기획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 결과물은 조사의 정확성, 신뢰도, 기여도 등을 인정받아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제정한 조사보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지역, 계층, 이념 등 4가지 키워드를 통해 민심을 분석했다.



먼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에서 20대는 가장 흥미로운 면을 보였다. 지금의 20대는 보수당이 환영하듯 정말 보수화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대는 북한 관련 이슈에는 보수적이고 다른 사회정책에는 진보성향을 띠었다.

미국과 북한이 운동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2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미국 편을 들었다. 북한과 일본 경기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일본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20대가 북한에 유독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상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

다. 여러 세대의 특징 중 새롭게 명명한 IMF세대(2015년 기준 37~42세)는 흥

미로웠다. 이들은 젊은 시절 자본주의의 폐해를 목도하면서 강한 평등의식을 지녔다. 참여정부 등장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나이를 뛰어넘는 진보 성향을 띠게 되었다.

지역 면에서는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한 표심이 흥미로웠다. 호남권은 아픈 역사로 인해 쉽게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투표율이 많이 하락했다.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당시 ‘우리도 대통령 한번 내보자’는 민심이 집결됐다. 여야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에 따른 정치적 선택의 차이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 조사에 따르면 가구재산이 4억 이상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았고 가구 재산이 5000만원에서 4억원 이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낮은 지지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집 문제가 정치적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이념이다. 지난 10년간 성장과 복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보니, 성장 대 복지 이슈 구도에서 성장이 우위를 점했다. 성장 우선주의에 맞서는 정당은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외연 확대가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보수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중도층 또한 보수층보다 진보층에 더 큰 거리감을 느꼈다. 저자들은 정권 차원의 이념 동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협 등 이념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를 개탄하는 국민들의 향후 정치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가 과거 3김시대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55.9%는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 명 이상은 있다’고 답해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책값·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2014년 번역 논쟁 소설로 재구성



**카뮈로부터 온 편지**

이정서 지음

2014년을 뜨겁게 달군 번역 논쟁의 중심에는 ‘이방인’의 역자인 이정서가 있었다. 그는 카뮈 ‘이방인’의 오역을 지적한 ‘역자노릇’을 실은 ‘이방인’을 출간함으로써 번역도 문학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가 기존 번역문단의 틀에 갇혀 있거나, 남다른 의식이 없었다면 새로운 ‘이방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이정서가 펴낸 ‘카뮈로부터 온 편지’는 번역계와 카뮈를 소재로 한 독특한 작품이다. 번역계의 ‘이방인’으로 불리는 이정서는 이번 소설에서 지난

번역 논쟁을 소설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실제 번역 과정이 소설로 재탄생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관심을 끈다.

소설은 주인공 이윤이 죽은 카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도입부는 책이 단순히 번역비평서가 아니라 흥미로운 소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카뮈의 원 문장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미스터리적인 요소로 긴장감을 유지한다. 그러는 과정에 독자들은 어느 순간 올바른 번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 이윤을 통해 왜 그가 오역에 민감하고, 어떻게 번역을 시작했고, 왜 연재를 끝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책의 특징은 원문장과 비교하면서, 원문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카뮈의 숨겨진 고스란히 살려놓았다는 데 있다. 〈책값·1만42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중국 역사 흐름을 바꾼 모략가 75인 소개



**역사를 바꾼 75인**

차이위치우 외 지음

부족국가 황제의 나라로부터 출발한 중국은 영토의 방대한만큼이나 변화무쌍한 역사를 이어왔다. 치세가 있으면 난세가 찾아왔고, 통일 후에는 분할이, 할거 뒤에는 재통일이 뒤따랐다. 요동치는 시대의 모순은 수많은 모략가들을 탄생시킨 주 요인이었다. 그 가운데는 난세를 부른 악역도 있었고, 치세를 복원

시킨 주역도 있었다. 중국인체과학연구원 특별초빙교수 차이위치우 등이 펴낸 ‘역사를 바꾼 모략의 천재들: 중국편’은 중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표 모략가 75인을 소개한다. 책은 단순한 인물 평전에 그치지 않고 각 인물들이 펼친 ‘모략’에 초점을 둔다. 모략은 ‘지모와 방략’이라는 뜻과 함께 ‘숙임수와 중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책에는 점차 활용의 시조 ‘소강’, 원대한 판단력과 심오한 계략 ‘고경’, 사리에 능통하고 총명설에 뛰어난 ‘괴통’ 등 역사의 판도를 바꾸었던 모략 천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들녘·3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인간다운 삶을 향한 조광조의 개혁일기



**조광조 평전**

이종수 지음

선비의 강직한 기개를 보여준 조선 유학의 태산복두이자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조광조는 탐욕과 태만으로 물든 조선을 혼돈고자 일어난 개혁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성급함 때문에 결국 개혁에 실패했으며, 또한 그 개혁은 민생이 아닌 유교적 이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우리가 몰랐던 조광조의 개혁일기를 다룬 ‘조광조 평전’이 출간됐다.

책은 인문과 예술을 결합한 독특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저자 이종수와 함께 그가 꿈꾸던 세상은 진정 무엇이었으며 어떤 힘겨운 투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열일곱의 나이에 유배지의 스승 김광필을 찾아 떠난 조광조의 길이 결국 자신의 유배지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전하는 극적인 서사 한 장면 한 장면을 읽다 보면 ‘개혁가 조광조, 인간 조광조’의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책값·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송승정 상무 010-7624-8822